

일한 번역그림책의 이름 번역 추이와 성인의 이데올로기: 영한 번역그림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 승 은
(한국외대)

1. 서론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어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리나라의 그림책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1980년대를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현은자, 김세희 2005: 182-187) 그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그림책 분야가 다양하게 분화하여 성인 독자들의 각광을 받는 장르의 책도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번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어권과 일어권으로부터의 번역에서 양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등장인물의 이름 번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한 번역그림책은 영한 번역그림책과 달리 등장인물의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양상이 남아

* 이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있다. 본고는 이를 고찰하고 그 배경을 살펴본 후 향후 번역 방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번역그림책을 포함한 한국 그림책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름을 비롯한 고유명사의 번역전략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 후 영한 및 일한 번역그림책의 이름 번역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차이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번역 방향에 대해 논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한국 그림책의 역사와 그림책 번역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그림책이 처음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현은자, 김세희(2005:182-196)는 1980년대 이전을 전(前) 그림책 시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를 그림책 인식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본격적 창작 그림책의 출간과 번역 그림책의 정리기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따라 각 시기의 번역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의 이름 번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그림책 인식기인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기에는 번역그림책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소수의 한국 그림책을 만들며 그림책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 시기이다. 많은 경우 저작권 없이 번역이 되었고, 번역자 역시 명기되지 않았다(현은자, 김세희 2005: 187). 다만 한림출판사가 일본의 복음서점과 정식으로 계약하고 단행본을 번역 출판하였다(ibid 190). 이때의 그림책 중 『이슬이의 첫 심부름』, 『순이와 어린동생』 등은 아직도 그림책 스테디셀러 리스트에 있다.¹⁾ 전집으로는 보림출판사의 『위대한 탄생』, 신진여성의 『위대한 만남』 등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저작권을 계약하지 않았다(ibid 187).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본격적인 창작 그림책 출간과 번역그림책의 정리기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한 번역서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국내 창작 그림책 역시 활발히 출판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번역그림책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김경연 2008: 245; 현은자 김세희 2005: 194).²⁾ 초기에는

1) <http://www.aladin.co.kr/shop/common/wbest.aspx?BestType=SteadySeller&BranchType=1&CID=35091&ItemType=undefined>

2)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아동문학 전반에서 창작 및 번역서의 비

영어 그림책과 일어 그림책이 주로 번역되었으나 차차 여러 국가로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3. 이름 번역 방법

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번역할 때 단지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이름을 그대로 음차하거나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 문화의 이름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컨대 아이헬라(Aixelá 1996)는 고유명사 번역의 방법을 크게 보존과 대체로 분류하고 그 하위 분류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ST 중심 이름 대(對) TT 중심 이름의 두 가지 방법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거시적인 흐름을 살핀다는 의미이며 여타의 번역 방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동문학 번역에서 이름을 비롯한 고유명사의 번역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ST의 문화적 내용을 TT의 문화에 맞추어 바꾸는 경향이 우세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ST 중심의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Van Coillie & Verschueren 2006: viii; 김경연 외 2006: 9).

그림책에서 이름 번역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략이 있다(성승은 2011).

중을 제시하며 번역서의 경우 각 나라별 비중을 제시하지만, 그림책 분야를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김경연(2008: 245)에서도 그림책 관련 별도의 통계수치를 구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개별적으로 몇몇 출판사에 연락했으나 그런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집계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표 1〉 그림책 이름 번역 전략³⁾

음차	Frederick → 프레드릭
음차 + 본문 설명	Bear → 아기곰 베어
음차 + 주석 설명	리치* 오빠 (*리처드의 애칭으로 외국에서는 흔히 원래 이름을 줄여 부르곤 한다: 옹기이)
직역	Timothy Baker → 빵장수 티모시
ST 문화의 다른 이름으로 대체	Sheila Rae → 사라 ⁴⁾
TT 문화의 이름으로 대체	Mary Ellen → 초롱이
친족 지칭어/호칭어로 대체 및 첨가	George → 형
성(姓)과 이름 중 한 가지만 표현	The creams → 카밀라네 집
직함을 나타내는 어휘로 대체	Mr. Harms → 교장 선생님
TT 문화의 창의적인 이름으로 대체	Dr. Bumble → 나돌팔 선생님

위와 같이 이름은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체적인 추이, 특히 ST 문화의 이름인지 TT 문화의 이름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므로 위처럼 여러 번역 방법을 모두 논의하지는 않으며, TT에서 ST 문화의 이름을 음차했는지 TT 문화의 이름으로 대체했는지를 중심으로 번역 추이를 볼 것이다.

이름을 비롯한 고유명사의 번역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고유명사 자체의 속성, 텍스트 외적 변수, 텍스트 내적 변수, 텍스트 변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승은(2011)에서는 그림책의 고유명사 번역에서 이러한 변수를 논하고 있다. 고유명사 자체의 속성이란 가령 고유명사가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이를 살려서 번역하게 된다는 것이다(Van Coillie 2006). 위 예에서 ‘Dr. Bumble’을 ‘나돌팔 선생님’과 같이 번역하는 경우이다. 텍스트 외적 변수로는 대상 아동의 연령, 번역자의 개인 성향, 출판사의 방침 및 기타 이해 관

3) 이 표는 성승은(2011)에서 재구성하였으나 다만 ‘ST 문화의 다른 이름으로 대체’는 본고에서 첨가한 것임.

4) Sheila Rae, the Brave(1996. Kevin Henkes. HarperCollins Children’s Book). 『용감무쌍한 사라』(2008. 이경혜 옮김. 비룡소). 이 외 다른 예는 모두 성승은(2011)의 것임.

계자 등이 있을 것이다. 텍스트 내적 변수에는 텍스트 전체에 적용되는 규범이 있다. 하나의 이름이 특정한 방식으로 번역된다면 다른 이름의 번역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해당 이름의 중요도와 빈도 등도 역시 고려해야 하며 텍스트 전체의 맥락 파악도 필요하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고유명사를 연구한 데이비스(Davies 2003)는 이 시리즈의 문화소 번역에서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일상 세계의 문화소는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마술 세계의 문화소는 다소 낯설게 번역할 것을 강조한다. 일상 세계의 문화소를 독자들에게 낯설게 번역하면 마술 세계와의 대조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 변수는 스크린, 책과 같이 텍스트의 매체 등을 말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서로 관련되어 번역전략에 영향을 미친다(성승은 2011: 162-163).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고찰하는 이름은 이름 자체에 특정한 의미가 내포된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이름은 위 이름 번역 전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대상 연령은 약 5-10세(인터넷 서점 기준으로 4-7세)로 한다. 또한 판타지 그림책, 혹은 판타지와 사실주의가 혼합된 그림책(예: 『한밤중의 화장실』 2012 한림출판사)이나 동물이 등장인물인 경우는 제외하고 사실주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비스(Davies 2003)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타지의 경우 ST 중심의 번역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주의 그림책이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그림책이며, 성장,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룬다(이성은 2003: 161-162). 판타지 그림책은 현실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소재나 대상, 또는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다(Lukens 2003: 20).

4. 일한 번역그림책과 영한 번역그림책의 이름 번역 추이

본고에서 일한 번역그림책과 영한 번역그림책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은 이들 언어권의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하는 아동문학에 관한 통계는 아동도서 전체를

포괄하며 그림책만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그 외에 다른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아동문학 전반과 같이 그림책 분야도 영어와 일본어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번역서 중 미국, 일본, 영국의 책이 67.1%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64.1%를 차지하였다.⁵⁾

그림책의 목록은 현은자 김세희(2005: 183-264)와 1990-1996년 한국의 그림책의 출간을 고찰한 심은희(1996)를 참고하여 고찰하였다. 그림책 목록 선정에 적용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약 5-10세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 판타지 제외 사실주의 그림책 중심
- 동물이 등장인물인 경우의 이름 제외
- 의미가 내포된 이름 제외
- TT 기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 제외

4.1. 일한 번역그림책의 번역 추이

1) 그림책 인식기

먼저 일한 번역그림책의 이름 번역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책 인식기를 1980년대부터 1993년까지로 볼 때(현은자, 김세희 2005: 183) 이 시기의 그림책은 일본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이 대부분 한국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의 번역 전집 그림책은 해적판이 많았는데(ibid: 187), 본고에서는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번역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표 2> 한국 아동문학 번역서에서 ST 국가의 비중

	전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011	2545	721	560	404	211	204	78
비율(%)	26.7	28.3	22.9	15.9	8.3	8.0	3.1
2012	2002	631	362	290	95	264	49
비율(%)	26.7	31.5	18.1	14.5	4.7	13.3	2.4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 『순이와 어린 동생』(1989 한림출판사)
- 『병원에 입원한 내 동생』(1989 한림출판사)
- 『이슬이의 첫 심부름』(1991 한림출판사)
- 『혼자 가지 마』(1993 한림출판사)

2) 본격적 창작 그림책의 출간과 그림책 정리기

본격적 창작 그림책의 출간과 그림책 정리기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인데 1994년-2000년과 가장 최근인 2010-2013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판매량 순으로 보면서 첫 출간연도를 추적해 갔다.⁶⁾

- 『오늘은 무슨 날?』(1994 한림출판사)
- 『우리 친구하자』(1994 한림출판사)
- 『은지와 폭신이』(1994 한림출판사)
- 『아저씨 우산』(1996 비룡소)
- 『난 병이 난 게 아니야』(1998 한림출판사)
- 『숲 속의 요술물감』(1999 한림출판사)
- 『민수야 힘내』(2000 한림출판사)
- 『숲 속의 숨바꼭질』(2000 한림출판사)
- 『나도 캠핑 갈 수 있어』(2000 한림출판사)
- 『엄마와 나의 소중한 보물』(2000 크레용 하우스)⁷⁾

위 목록과 같이 1994년-2000년에도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뀐 책들이 있었다. 『오늘은 무슨 날?』(1994 한림출판사)의 주인공 이름은 ‘슬기’이고, 『아저

6) 인터넷 서점 알라딘(www.aladdin.co.kr) 국내도서>유아>그림책>나라별 그림책>일본, 국내도서>유아>4-7세>그림책. 알라딘은 다른 인터넷 서점에 비해 이러한 분류가 더 체계적이어서 알라딘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여 책을 보았으며 제시한 목록이 해당 시기의 번역서 중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뀐 경우를 모두 포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익명의 심사위원이 한림출판사의 책이 많아서 일반화하여 번역전략을 논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한림출판사의 책이 많은 것은 이 출판사에서 가장 먼저 저작권 계약을 통해 그림책을 들여와 번역하였고, 이 출판사의 책 중 다수가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후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들어 많은 아동 출판사가 그림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다양한 출판사에서 일본 그림책을 들여오게 된다.

씨 우산』(1996 비룡소)에서는 ‘통통이’가 등장한다. 『엄마와 나의 소중한 보물』은 ‘인호’가 주인공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아동도서에서도 ST 중심의 번역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일한 번역그림책에서도 2010-2013년의 최근에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관행이 사라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조금만』 (2010 한림출판사)
- 『오늘도 화났어』 (2010 내인생의책)
- 『고백할 거야』 (2010 책읽는곰)
- 『나』 (2011 한림출판사)
- 『양말 들판』 (2011 책과콩나무)
- 『내 베개 어딴어?』 (2011 주니어김영사)
- 『아빠는 뽕쟁이』 (2011 학교재)
- 『1학년 책가방이 왔다』 (2011 와이즈아이)
- 『오늘은 엄마 차례』 (2012 책과콩나무)
- 『유치원에 가기 싫어』 (2013 살림어린이)

위와 같이 최근의 책에서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고백할 거야』에는 봄이(ST: はるな 하루나)와 곁이(ゆう 유)가 등장하고, 『아빠는 뽕쟁이』에서는 아빠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일호(イチロ 이치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치원에 가기 싫어』에서는 민수(たけし 타케시), 소희(まな 마나), 준호(つばさ 쓰바사)가 나온다. 한림출판사의 책들도 있고, 그 외의 출판사들의 책도 보인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들어 국내의 그림책 출간이 여러 출판사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386세대의 여성들이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책을 적극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림책을 비롯한 아동도서가 큰 인기를 구가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최현미 2005: 91). 이제 영한 번역그림책에서 이름의 번역 추이는 어떤지 보기로 하겠다.

4.2 영한 번역그림책의 번역 추이

1) 그림책 인식기

영한 번역그림책 중에서 그림책 인식기에 번역된 사실주의 그림책은 찾을

수 없었다. 본고는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번역된 책은 다루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해적판 중에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2) 본격적 창작 그림책의 출간과 그림책 정리기

앞서 일한 번역그림책 고찰에서는 본격적 창작 그림책의 출간과 그림책 정리를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으나 영한 번역그림책 중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바꾼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기를 다시 분류하지 않기로 한다.

『꿀벌나무』(2003 국민서관)

『선생님을 찾습니다』(2006 문학동네), 『요 사교몽치들 내가 돌아왔다』
(2006 문학동네)⁸⁾

영한 번역그림책 중에서는 ST의 이름을 TT 문화의 이름으로 바꾼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꿀벌나무』에서는 이름과 지명 등 고유명사가 전체적으로 한국 이름으로 바뀌거나 단순화되었다. 할아버지와 ‘초롱이’(ST: Mary Ellen)는 꿀벌을 쫓아가면서 연두 양, 완두 양(Herman sisters, Petra and Dorma), 금반짝 양(Bertha Fitchworth) 등을 만나고 낭떠러지(Greiner's Bluff)를 지난다. 『선생님을 찾습니다』에서는 선생님인 ‘Miss Nelson’이 ‘보드레 선생님’으로 번역되었다(성승은 2011: 154, 157). 이같이 영한 번역그림책에서도 이름이 TT 중심으로 바뀌기도 함을 알 수 있으나, 일한 번역그림책보다는 그 수가 현저하게 적어서 영한 번역그림책과 일한 번역그림책은 등장인물의 이름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제 이러한 차이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5. 논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한 번역그림책과 일한 번역그림책은 등장인물의 이름 번역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바, 후자에서는 ST의 이름이 한국의

8) 이 두 권의 책은 시리즈이다.

이름으로 바뀌는 사례가 더 많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한국의 아동문학 번역에서는 고유명사가 대체로 크게 바뀌지 않고 ST 위주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 코일리(Van Coillie 2006: 123)의 고찰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로 반 코일리는 아동문학 번역에서는 고유명사가 TT 중심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고 논하며, 특히 약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서는 ST의 이름이 바뀐 경우가 ST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2006: 135). 또한 엘브스테드(Alvstad 2003: 274)는 7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책에서는 TT 문화의 이름만 발견되며, 그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책에서는 TT 문화의 이름과 ST 문화의 이름이 함께 발견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한국의 영한 번역그림책에서는 유사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영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ST의 이름을 유지할 것이냐, TT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주요 논의로, ST 중심 대 TT 중심 번역 간의 팽팽한 긴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좀 더 확대하자면 ST 저자에 충실할 것인가 아동 독자에게 충실할 것인가의 논의가 되며(Oittinen 2000), 또한 아동 독자에게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 아동 독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Lathey 2006: 4-5). 그런데 영한 그림책 번역과 일한 번역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한 문화의 아동문학 번역에서 고유명사 번역에 대체적인 방향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특정 언어, 즉 일본어에 대한 성인의 시각이 반영되는 것이다. 일본 이름을 꺼리는 성인의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며, 또한 ST의 그림이 한국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과 주제가 주로 인성 및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이 관련된다. 아래에 이를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5.1. 일한 번역그림책에서의 성인의 이데올로기 작용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 번역그림책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과 아동 독자에게 어떤 이름이 좋은가에 대한 성인의 시각이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성인의 시각을 ‘이데올로기’로 아울러 표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이

데올로기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 및 신념(Simpson 1993: 5)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 둘째, ST 문화의 이름과 TT 문화의 이름 중 무엇이 아동 독자에게 더 좋은가에 대한 성인의 시각으로 보기로 하겠다. 만약 번역자·출판사·편집자 등이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인식하거나 또는 아동이 책의 내용에 더 동화되기 위해서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한국 이름으로 바꿀 것이며, 일본 이름에 거부감이 없고 어느 정도 낯선 이름이라도 아동이 즐겁게 책을 읽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ST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필자가 연락을 취한 세 어린이 출판사 측에서도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이야기하였으며, 일본 아동문학 번역가인 고향옥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아직도 유아들이 읽는 그림책에는 일본 이름이 우리 이름으로 바뀌기도 한다. 나 또한 오래 전에 출판사 요구대로 일본 아이를 우리 아이로 둔갑시킨 적이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또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일본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고향옥 2007: 45-46)

이러한 경향에 대해 아동문학 평론가이며 번역가인 김경연은 “결국 일본사람 이름을 우리 식으로 붙이는 건 원전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시각을 지킨 것도 아니 라고 주장하며 이는 “좋은 번역을 따질 때 고려하는 몇 가지 기준을 다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한다(김경연 외 2006: 39-40). 아동문학자 아끼꼬 야마자끼(2006: 76-79)도 ST의 이름을 TT 문화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가 무엇을 낯선 것으로 느끼는가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유아일수록 외국이름에 더욱 익숙해지기 쉽다 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한 한 아동출판사의 편집자도 각 나라의 정서가 있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존재한다. 2006년 창비어린이의 어린이문학과 번역에 대한 좌담에서는 한림출판사의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 일본 그림책인데 주인공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번역된 것을 비롯, 아동 도서에서의 이름에 관

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책의 그림의 배경이 명백히 일본인데 ‘이슬이’로 번역하면 독자가 혼동될 수 있음이 제기되자 최정선 당시 보림 출판사 주장은 “그렇다고 일본사람 이름이 붙은 ‘누구누구의 첫 심부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확실히 더 좋을지 그것도 모르겠 다고 말한다(김경연 외 2006: 39). 이 관점은 한국의 이름이어야 어린이들이 등장인물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이를 자신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연락한 한 아동출판사의 편집자도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특히 하야시 아키코⁹⁾의 책과 같은 경우 지금 새로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한국 이름으로 하고 싶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무엇보다 성인의 시각이 아동문학 번역에 그대로 반영됨을 보여준다.¹⁰⁾ 이러한 시각은 아동과 성인 간의 불균형한 관계(Lathey 2006: 4-7)에 기반한다. ST 문화의 이름을 TT 문화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아동에 대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르페브르(Lefevre 1992: 39)는 이데올로기가 언어적 고려사항보다 우선시된다고 주장한다. 언어적인 고려 사항이 이데올로기나 문학 사조와 관련된 고려 사항과 충돌할 경우, 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문학 시스템에서 번역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통제된다. 즉, 1) 번역가·비평가·교육자 등 문학시스템 안의 전문가 2) 출판사 등 문학시스템 밖의 후원자 3) 지배적인 문학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일한 번역그림책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문학 시스템 안의 번역자는 시스템 밖의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인식해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거나, 혹은 어린이 독자가 책의 내용이나 등장인물과 더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한국 이름으로 바꾼다. 성인 독자들의 지배적인 분위기인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던 것으로, 광복 후 국어순화 운동에 대해 일본어계 어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이광제 2011: 212). 우리말 속의 일본어는 수치스런 일제의 잔

9) 일본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로 『이슬이의 첫 심부름』, 『순이와 어린 동생』 등 한국에서도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다.

10) 이러한 논의로 박선희(2010), Pounds(2011) 등 참조.

재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정화 작업이 국어 순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김광해 1995: 7).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어린이 독자가 책의 내용에 더 친근감이 들도록 한국 이름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성인 독자를 의식하기보다는 아동 독자를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다. 낯선 외국 이름보다는 한국 이름의 등장인물이 더 익숙하고 따라서 책의 주제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5.2. 그림과의 조화 및 책의 내용

일본 그림책이 번역되면서 일본 어린이가 한국 어린이로 바뀌는 데에는 한국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의 그림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그림의 배경이 일본 문화 특유의 배경이 아닌 경우에는 책 겉표지의 저자나 역자 표기를 보지 않으면 번역서인 줄 모르고 책을 읽게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그림책 저자 하야시 아키코의 책들을 비롯해서 위 목록에서 한국 이름이 사용된 책들은 대체로 그림에 일본 색채가 짙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그림과 글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도 간혹 발생한다. 일본 그림책에서는 결국 일본 고유의 문화와 정서가 배어 있게 마련이다. 『순이와 어린 동생』의 그림을 보면 ‘순이’(ST 이름: あさえ 오사에)가 동생이 보이지 않자 찾으러 나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차의 주행 방향이 한국과 다르게 그려져 있다. 또 그림에서 보이는 동네의 모습이 전형적인 일본 동네의 모습이다(김경연 외 2006: 38-39). 『1학년 책가방이 왔다』에서는 주인공 ‘바다’(うみひこ 우미히코)¹¹⁾가 학교에 메고 다닐 책가방을 선물 받는데 일본 어린이들이 메는 책가방 모습이다. 또한 옆집 ‘대현이’(たけし 타케시) 형네 할머니가 바다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하며 고개를 깊이 숙여 바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데 이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처럼 주인공들의 생활공간은 한국인데 일본 특유의 모습과 정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독자에게 혼란을 안겨줄 소지가 있다.

책의 내용도 그림과 연관되어 한국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일한 번역그림책 중에서 한국 이름으로 바뀐 책들은 특히 생활동화라고

11) ‘うみ(우미)’가 ‘바다’라는 뜻이어서 주인공 이름을 바다라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도 불리는 생활 습관 형성이나 인성·감성에 관한 책이 주를 이룬다.¹²⁾ 그림책 인식기와 본격적 창작 그림책의 출간 및 그림책 정리기의 초기는 물론 최근의 책들도 이러한 종류가 주를 이룬다. 『오늘도 화났어』는 화가 나는 마음을 돌아보는 책이고, 『나』는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책이다.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런 내용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친근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책은 등장인물이 한국 어린이라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스스로와 더욱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모습과 비슷한 그림과 생활동화라는 책의 내용 역시 일한 번역그림책에서 일본 이름을 바꾸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5.3. 향후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는 일본 그림책 번역에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책 인식기에 비하면 최근에는 일본 이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판매량 순위 검색 결과 상위에 있는 책들을 보면 다수의 책이 일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100층짜리 집』(2009 북뱅크)에서는 도치(トチ)가 주인공이고 『친구랑 싸웠어』(2006 시공주니어)에서는 다이(たい 타이)와 고타(こう타 코타)가 등장한다. 또 『방귀만세』(2001 아이세움)에서의 아이들 이름은 요코(ようこ), 테츠오(てつお) 등이다.

필자가 연락한 세 곳의 어린이책 출판사들에서도 80년대와 90년대에는 일본 이름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이름으로 바뀌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 아동 출판사는 일본 그림책을 선도적으로 들여와 번역한 한림출판사에서 이름을 바꾸는 예를 들면서 이 출판사도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일각에서는 번역서에서 한국 이름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어린이 문학과 번역에 대한 대답에서 한 참석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김경연 외 2006: 39) 예컨대 『순이와 어린 동생』을 『오사예와 어린 동생』이라고 하면, 동

12)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분류: ‘좋은 습관’, 알라딘의 분류: ‘인성·감성’

생을 생각하는 언니의 마음이 낯선 외국 이름에 의해서 그만큼 덜 전달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3년 한국번역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본고의 내용 일부를 발표했을 때 토론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순이’가 우리 한국 어린이들에게 훨씬 친근하고 와 닿는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영미권의 그림책 등장인물 이름도 그림이 뚜렷하게 외국 아동이 아니라면 한국 이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미권 이외의 다른 유럽권 언어들의 이름 역시 그대로 음차되고 있는데 유독 일본 이름만 바꾸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만약 여전히 일본 이름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이름이 어렵다고 여겨진다면 좀 더 단순하거나 짧은 애칭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름의 번역전략에서 길고 어려운 영어 이름을 좀 더 쉬운 이름으로 바꾼 예 (Sheila Rae→사라)와 같다. 그림책 독자들은 이미 외국 이름에 상당히 익숙하다.

또한 사실 ‘순이’라는 이름은 요즈음의 어린이들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89년에는 익숙한 이름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시대에 따라 국내의 이름도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 그림책은 다른 장르에 비해 수명이 긴 경우가 많아 이름 번역에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림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래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다. 출간 1, 2년의 독자 반응이 책의 판매를 결정짓는 성인 도서와 달리 어린이 그림책은 ‘구간(舊刊)이 명간(名刊)’(‘그림책은 구간이 명간’ 동아일보 2009년 5월 2일자)인 경우가 많다.¹³⁾ 교보문고의 그림책 베스트셀러 20위에 든 책들 중에는 출간된 지 10년 이상 된 책이 6권이며 이 중 4권은 1990년대에 출간되었다.¹⁴⁾ 인터넷 서점 예스 24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인 책이 7권이며 이 중 4권은 1990년대에 출간된 책이다.¹⁵⁾ 특정 방향으로 번역된 그림책은 그만큼 긴 시간 어린이들에게 읽히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지나 일본 이름을 그대로 음차하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더라도 기존에 번역된 책들은 출판사가 마음먹고 다시 번역하지 않는 한 그대로 판매되고 독자들에게 읽힌다는 말이다.

13)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70000000015/3/70070000000015/20090502/8727383/1

14) <http://www.kyobobook.co.kr/category/categoryKor.laf?linkClass=4103&mallGb=KOR>

15) <http://www.yes24.com/24/Category/Display/001001027001?ParamSortTp=05>

앞으로는 ST 위주의 이름이 점차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전망이다. 우선, 앞서 고향옥(2007: 45-46), 김경연 외(2006: 39-40) 등의 언급에서도 보았듯이 일본어 이름을 유지하지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고, 실제로 일본 이름을 유지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출판사에서 최근에는 일본 이름을 유지하는 책들을 출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출간된 사실주의 그림책 『비밀의 방』(2013 한림출판사)은 낯선 곳으로 이사 와서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인데 사코(ST: さっこ 샛코)가 주인공이다. 출판사 측에서도 최근에는 일본 이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 최근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때에도 일본 이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이충일 2009) 이 역시 ST 위주의 이름이 유지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이다. 다음 표와 같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약 5년간 다문화 학생의 수가 거의 5배 증가하였다.

〈표 3〉 한국 다문화 학생 수

연도	계	초	중	고
2005	6 121	5 322	583	206
2010	30 040	23 602	4 814	1 624

(출처: 통계청 다문화 청소년 자료 재구성)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림책 문화는 198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ST 위주의 이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980년대 처음 일본에서 그림책을 들여 올 때에는 일본 이름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창작 그림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번역그림책이 국내 창작 그림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그림책 출판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창작 그림책 중 생활동화도 많이 출간되었다. 더욱이 영어 그림책은 유아들의 생활 습관이나 일상생활, 인성·감성에 관련된 사실 그림책도 처음부터 음차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터의 의자』(1996 시공주니어)에서는 ‘피터’가 주인공이고,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2001 국민서관)에서는 ‘찰리’와 ‘롤라’가, 『난 싫다고 말해요』(2006 북뱅크)에서는 ‘제시카’가, 『겁쟁이 빌리』(2006 비룡소)에서는 ‘빌리’가 등장한다. 이들은 처음 소개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어 어린이 독자에게 잘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피터의 의자』는 그림에서 피터가 흑인의 모습이므로 한국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외 등장인물들은 명백히 다른 나라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향후에는 점차 일본 이름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이들의 생활 습관 등에 관한 생활동화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딜 수 있다고 여겨진다.

6. 결론

본고는 일한 번역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뀌는 현상을 영한 번역그림책과의 비교를 통해 논하고, 향후에는 점차 ST 문화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 이름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아동 출판계에서 제기되면서 실제로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급속도로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창작 및 번역그림책이 양과 질 모두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다만 생활 습관이나 감성·인성과 관련된 생활동화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동문학 번역은 독자가 아동이지만 주로 성인에 의해 쓰이고 번역되며 판매 및 구매된다는 점에서 성인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다. 일본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뀌는 현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 성인들은 아동 번역에서 성인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아동을 위한 번역에 대해 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본고는 일한 번역그림책의 이름 번역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한다는 관점에 따라 고유명사 전체로 논의를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이름 이외의 고유명사도 함께 고찰한다면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연 (2008) 『우리들의 타화상』. 파주: 창비.
- 김경연 (2003) 「그림책, 글과 그림 사이」, 『내일을 여는 작가』 32: 56-78.
- 김경연 · 박정선 · 최영미 · 최윤정 · 최정선 (2006) 「어린이문학과 번역」, 『창비 어린이』 4(1): 6-41.
- 김광혜 (1995)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5(2): 3-26.
- 고향옥 (2007) 「아동문학 번역의 이모저모」, 『내일을 여는 작가』 46: 35-51.
- 박선희 (2012) 「『홍당무』 번역의 과거와 현재: 아동본 번역의 쟁점들」, 『번역학연구』 13(2): 65-88.
- 성승은 (2011) 「그림책의 고유명사 번역에 관한 고찰」, 『국제언어문학』 24: 143-169.
- 심은희 (1996)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의 장르 및 구조 분석 : 1990년-1996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논문.
- 아끼꼬 야마자키 (2006) 최윤정 번역. 「어린이책을 번역할 때 왜 이름을 바꿀까?」, 『창비어린이』 4(1): 6-41.
- 이광재 (2011) 「한국의 국어순화 운동과 일본어계 차용어」, 『한립일본학』 19: 187-214.
- 이성은 (2003) 『아동문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충일 (2009) 「번역동화, 문화의 다양성을 고민하자」, 『어린이책 이야기』 2(33): 48-63.
- 최현미 (2005) 「국경은 더 이상 문화적 방어막이 아니다」, 『북페덱』 2004 겨울호 90-96.
- 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 I』. 파주: 사계절.
- Aixelá, J.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 Alvarez & M. del Carmen-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 Alvstad, C. (2003) 'Publishing strategies of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in Argentina: A combined approach', *Meta* 48(1-2): 121-125.
- Davies, E. (2003) 'A goblin or a dirty nose: The treatment of culture-specific

references in translations of the Harry Potter Books', *The Translator* 9(1): 65-100.

Lathey, G. (2006)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Ed.).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r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ukens, R. (2003) *A critical handbook of children's literature*. Boston: Pearson Education.

Oittinen, R. (2000)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 London: Garland.

Pounds, G. (2011) 'Foreignizing' or 'domesticating' the ideology of parental control in translating stories for children: Insights from contrastive discourse analysis', *Applied Linguistics* 32(2): 277-298.

Simpson, P.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New York: Routledge.

Van Coillie, J. (2006) 'Character names in Translation: A functional approach' in J. Van Collie & W. Verschueren (Eds.),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 Manchester: St. Jerome, 123-139.

Van Collie, J. & Verschueren, W. (2006)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Eds.). Manchester: St. Jerome.

<http://www.aladin.co.kr/shop/common/wbest.aspx?BestType=SteadySeller&BranchType=1&CID=35091&ItemType=undefined>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70000000015/3/70070000000015/20090502/8727383/1

<http://www.kyobobook.co.kr/category/categoryKor.laf?linkClass=4103&mallGb=K>
OR

<http://www.yes24.com/24/Category/Display/001001027001?ParamSortTp=05>

[Abstract]

**Adult Ideology Reflected in Translation of Character Names:
Japanese-Korean Picture Book Translations Compared with
English-Korean Picture Book Translations**

Sung, Se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nce they were first introduced in the 1980s, picture book translation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in Korea. A significant number of translations has been from English and Japanese. The translations from these two languages reveal a difference in the translation of proper names, particularly names of characters. This paper delves into this phenomenon, investigates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and attempts to put it into perspective.

In Japanese-Korean picture book translations, the character names are often changed into Korean names wherea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s original names are retained. The former reflects adult ideology in picture book translations: an aversion to Japanese names by Korean adults, and their view on whether ST-oriented or TT-oriented names are better for children. After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ended in 1945, extensive efforts were made to eliminate traces of the Japanese language from Korean. This avoidance of Japanese names in Korean translations can be viewed as a residue of such efforts. An alternate reason for the name-changing of characters in Japanese-Korean translations is the deemed familiarity of young Korean readers with Korean names.

Nevertheless, this practice is gradually shifting towards the preserving of original Japanese names in translated picture books. Quantity and quality enhancement in both authentic and translated picture books in Korea, call for

cultural diversity in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s, and rapid multiculturalization in the Korean society all lead towards more ST-oriented translation of character names in picture books.

▶ Key Words: picture books, Japanese-Korean translations, English-Korean translations, ST-oriented names, TT-oriented names.

성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조교수

michsung@hotmail.com

관심분야: 아동문학번역,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